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 : 마가복음 14:27-72

요절 : 마가복음 14:36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요즘 우리나라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만 해도 두 나라는 ‘화염과 분노’, ‘핵버튼이 누가 더 크다’를 운운해 한국은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등이 열렸고 북한 핵 폐기와 함께 종전선언도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래 숙원이었던 평화가 정착될 기회를 맞았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올해 말까지 핵폐기와 종전선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죄로 비참하게 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죄로 가득하여 파멸하고 타락한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고 이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체포되시기 바로 직전에 벌어진 일들로 매우 긴박한 상황 중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긴박한 상황 중에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힘을 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눅22:43) 예수님은 이 곳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시기까지 기도의 씨름을 하셨습니다.(눅22:44) 예수님은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때마다 기도하셨는데, 특히 겻세마네 사건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적 싸움은 인류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참으로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자기 원대로 해 버리면 인류구원역사는 영영 물 건너가고 맙니다.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게 됩니다. 인류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아래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신 예수님의 사명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점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셔야만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서는 감당키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세 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심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예수님 자신에게서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치게 될 환란과 시련의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예 전무하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초대교회에 닥친 극심한 환란과 시련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1.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심(27~31)

그러면 27절을 보십시오. 최후의 만찬으로 널리 알려진 유월절 만찬을 마친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26) 그리고 예수님은 스가랴서 13:7절을 인용해서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심으로 그 곳에서 도망간 제자들과 다시 재회하심으로 그들을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28)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들을 만나 부활의 믿음을 심고 자립신앙을 갖도록 돕고자 하신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이 나중에는 거목들이 되어 사도행전 역사를 이룰 것을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줄 모르고 큰 소리쳤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예수님이 섭섭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신이 정작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연약한 자라는 자기 발견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 자기가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 발견이 부족하면 자기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만 생각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잘못하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며, 잘못하고 있는 듯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항상 사람에게서 비교할 끼리를 찾고,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는 낫다는 의로움을 양식으로 삼아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라도 있게 되면, 자기 열정이나 자기 확신으로 남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치명적 약점으로 폭 쓰러져서 많은 사람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발견이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생활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고 하였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롬 7:24, 딤후 1:15)

2.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32~42)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감람산 초입에 있는 동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기도하시러 가셨습니다.(33) 도중에 예수님은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습니다. 물결이 배를 덮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던 분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 앞에서 고백하셨습니다.(34) 예수님은 깊은 슬픔으로 짓눌린 상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이 의식이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을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극한의 고통을 맨 정신으로 당하며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우리가 평생에 겪는 어떤 경험 중의 하나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 고통보다도 더 감당하기 힘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리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면 박디모데 목자님이 근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말부부가 되셨는데 에스더 목자님과 분리되는 고통이 조금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허물이 많은 인간의 고통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서 분리되시는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박힐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으로 절규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세상의 어떤 아버지가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메시아로서 자신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웃고 희롱당하시며 제자들마저도 도망을 가는 소망 없는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못마땅하지는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모하고 눈먼 사랑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속죄제물로 희생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믿는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이요 최고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아셨지만 이를 감당하는 것은 심히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첫째,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 서서 또는 무릎만을 꿇은채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엎드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한없는 겸손함과 절실함을 그대로 드러내신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아이로가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렸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역시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엎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이로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웬만하면 엎드리기를 싫어합니다. 문제가 생겨

도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 속에 말려들어갑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처만 받고 쓰부리만 깊어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울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땅에 엎드려져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엎드려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기업인 조대캠퍼스는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그동안 감당해온 양들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를 안고 엎드려 기도해야겠습니다.

둘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36절을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에 쓰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고 그 품에 안길 때에 “아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써 아빠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 제발 이 십자가의 쓴잔을 치워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참으로 진솔했습니다. 꾸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들다고 토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말없이 등을 두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염려와 아픔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토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만 하지는 않았습다. 다윗은 자신의 고뇌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털어 놓았습니다. 시편 6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고 했습니다. 시편 38편에도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 전투 후에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세벨여사가 너무나 두려워서 저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로렘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이 못난 놈을 차라리 죽여 주세요(왕상 19:4)” 우리는 다윗 하면 골리앗을 물리친 용장,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친 역전의 용사로만 생각합니다. 엘리야 하면 혈혈단신으로 850명의 바알선지자들을 물리친 갈멜산의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다윗이나 엘리야도 한 연약한 인간이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

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깊이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솔직하게 쏟아 놓아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483장에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노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순간순간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고민을 토로함으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6,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남모르는 고뇌와 아픔으로 슬픔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문제에만 빠져 있지 않고 이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36b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처음에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강하게 긍정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대해서는 No 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Yes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 대해서는 항상 Yes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No 할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담의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No가 튀어 나옵니다. 조금만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No, 안해요 하고 툭깁니다. 사탄을 할 수 있는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No하고 반발하도록 부추깁니다. “네 뜻대로 살어” “네 맘대로 살어” “네 맘대로 연애하고 네 맘대로 결혼해” “네 맘대로 즐겨” 그러나 아담은 사탄의 말을 듣고 따랐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열매를 맺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겈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겈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추키고 유혹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어” “죽지 마” “살어” “너 능력 많잖아, 왜 죽을려고 해” “힘들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로 싸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부추키는 사단의 음성과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겈세마네’는 원래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겈세마네동산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사이에 영적인 투쟁을 하느라 마치 기름을 짜는 것처럼 피 말리는 씨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으로 다 기도를 마칠 수가 없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순간에 참으로 위대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예수님의 기도는 위대한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참으로 고귀한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에 사단은 철퇴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이기는 위대한 승리의 기도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이 예수님의 겈세마네 기도를 배울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연약한 육신에 저서 잠 잘 것이 아니라 기름 쓰고 겈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십자가가 크게만 보입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무섭고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게 느껴집니다. 자꾸 힘든 십자가만 맡기는 목자님이 입게 느껴집니다.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지면 나만 죽고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보면 십자가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길이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변장된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의 메가폰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약을 먹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중에 누구도 약 먹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은 입에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대로 약을 먹지 않을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울면서 매어 달립니다. “아빠, 엄마, 약 안 먹으면 안돼.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약 병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안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부모가 “그래 약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코를 비틀고 입을 벌려서라도 약을 먹게 합니다. 이는 자식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억지라도 약을 먹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는 죽이는 사약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보약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10,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외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또한 고린도전서 15:31절에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노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마치못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감격에 찬 기도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겈세마네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해 고뇌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를 기도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기도를 끝내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야 되는데 기도하시다가 도중에 중단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기척도 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오심으로 인해 자고 있는 것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안 졸았어요. 눈만 감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함께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보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훌륭하였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연약한 한 사람 ‘시몬’일 뿐이었습니다. 극한 시험이 닥칠 때 그 소원을 감당할 힘이 그의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가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오직 기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시험을 이길 힘을 덧입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런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두 제자는 지금은 그 필요를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오는 동안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여야 했습니다. 저녁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3-17장에 이르는 긴 내용의 다락방 강화도 그 저녁에 들었습니다. 또 기도도 길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겔새마네에 이르렀을 때는 거의 피곤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육신을 입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그래서 시험이 닥쳐올 때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소원을 따라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소원이 있습니다. 캠퍼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삼고자 하는 목자의 아름다운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감을 통해, 소위원 선서, 목자 선서를 하면서 베드로 못지 않은 결단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자 하는 결단, 매주 소감을 쓰고자하는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본성도 있습니다. 연애도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희생하고 죽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야 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 안에 없는 시험을 이길 힘을 위로부터 덧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을학기 새벽기도와 아침기도, 저녁기도 중 하루 1번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오시면 오묘한목자님이 새벽3, 4시부터 오셔서 준비하신 아주 은혜로운 말씀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녁에는 어두운 조영아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을학기 하루 한번 깨어 기도

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을수양회 놀라운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3. 체포당하신 예수님(43~72)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담대히 유다를 맞으셨습니다. 입맞춤은 당시 가장 친한 사이에 나누는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맞춤으로 자신을 팔고 있는 유다를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간이라면 유다의 가증스러운 입맞춤에 살이 떨리고 분이 치밀어 올라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50) 이런 사탄의 역사에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증언하셨습니다.(62)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하시는 뜻도 모르고 검을 빼어 휘둘렀습니다.(47) 잡혀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66-71). 그리하여 72절에서 보듯이 닭이 울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닭과 같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한 가지 점에서 매우 달라진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기도할 때 말고도, 행 3:1절에는 제 구시 기도시간에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예루살렘에 폭발적인 영적부흥이 일어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행 9:40절에도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죽은 다비다를 살린 기록이 나옵니다. 또 행 10:9절에도 기도하는 베드로가 나오고, 그 기도를 통해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섬겨 주신 은혜로 연약한 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자기 발견을 깊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나의 원대로’를 내려놓고,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아버지의 원대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진정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며,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만유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영광의 인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원히 따르며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힘든 일과 시험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을학기 하루한번 깨어 기도하는자들로 살아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